블 링 블 링 엔 젤 러 스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나눠요

글. 사진. 문명희(블링블링 엔젤러스 회원)

※ 식사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블링블링 엔젤러스'는 마을에서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머리단장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며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기 위해 뭉친 주부들의 모임이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심리적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블링블링 엔젤러스'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었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뿌리기'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꾸준하게 미용봉사를 해온 현직 미용사의 재능기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미용실이 쉬는 화요일에 기꺼이 참여해 준 '민트헤어샵 이계순 회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의 홀몸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농촌 소외지역의 어르신, 공동체 길잡이 선생님, 블루밍 5단지 노인정 어르신들, 청소년 보호기관인 식사동 소재 '둥지쉼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미용활동을 해왔다. 예쁘게 머리단장하고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어 주시는 분들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다른 활동으로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창 작 공 간 - 시 작

그대에게로 떠나는 예술여행~

글. 사진. 최지숙(창작 공간-시작 회원)

※ 행신3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술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돋보기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들여다보지 않고선 활동이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하는 연극 분야의 공동체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처음 연극을 통한 예술여행을 시작할 당시 '과연 연극을 좋아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다.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 행신동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동네 곳곳을 살펴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역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생각지 못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진다.

행신동이라는 친근한 공간에서 내 이웃들과 연극이라는 예술 분야를 통해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며 나를 찾아가는 예술여행을 함께한 지도 어느덧 10년이나 되었다. 그 사이 우리가 연습실로 애용하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도 공간을 넓혀 더욱 쾌적한 곳으로 이사했고 함께 예술여행에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예술을 찾아 떠난 사람도 있다. 또한, 새로운 여행자들이 찾아와 지금까지 함께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술여행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가족과도 같이 느껴지는 건 세월이 준 소중한 선물이지 싶다.

우리는 '어쩌면'이란 제목의 공연으로 연극 여행을 워밍업한 후, 아예 직접 창작한 희곡집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희곡 따라 떠나는 예술여행'이란 희곡집이다. 이 중 한 작품인 '엄마의 집'을 공연으로 올렸다. 세 번째 연극여행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과거에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우리 동네'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손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를 한국 스타일로 각색한 것이다.

올해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연극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세 단체들이 연합하여 협업을 이뤄나가는 소중한 경험이 그것이다. 청소년 극단 '울타리'와 직장인 극단 '샐러리맨' 그리고 중·장년층들로 이뤄진 창작 공간-시작 예술여행팀까지! 이 세 단체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과 주민들이 함께해주고, 공연예술 분야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창작 공간-시작의 고양시 예술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부디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연극여행을 떠날 수 있길 소망해본다.